

### “교육·포교사업, 복지활동 강화할 것” 태고종 2009 주요 종무정책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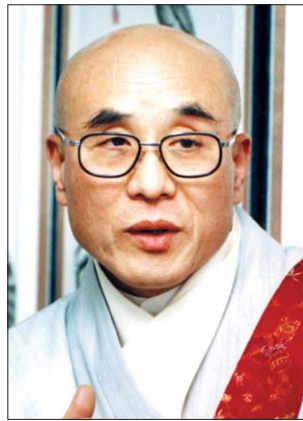
태고종은 동방대학원대학교, 동방불교대학, 삼보승가대학, 태고종립 선암사전통강원, 보덕사 비구니 강원, 전법사 교육원의 기반시설을 정비·확충하는 등 종도 교육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태고종(종무원장 운산·사진)은 종도 교육사업 강화 등 올해 주요 종무사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전국 시·도교구별, 사찰 단위별로 수행과 연수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 활동 강화 △종단 차원의 승려 법계별 연수교육 확대, 전법사교육원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제도 확립으로 종도 의식수준 향상 및 포교활동에 기여 △중양승가전문강원의 제도를 정비하고 활성화해 인재 양성 △종단 승려의 체계적인 종단관 확립 및 자질 향상을 통한 종단 위상 제고 △각종 교육행사 외부 전문인 초청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포교활동 및 복지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전국 시·도교구 종무원을 중심으로 각 지역별 ‘희망 나눔’ 포교활동을 전개, 소년소녀가장·독거노인 등 사회외계층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및 후원사업 등을 진행한다.

각 지역 단위 사찰별로 저소득 실직자 가정을 위한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경제난 극복을 위한 기도법회도 병행한다. 또 1사찰 1선행 운



동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영산재 해외공연 확대와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추진하는 등 문화·해의 교류사업에도 매진할 예정이다. 제3회 국토순례대장정 ‘호국영령 천도 영산대제’를 봉행하고, 분야별 ‘명인 지정제’를 실시해 전통 민속문화 유지·계승활동도 추진한다. 봉원사 연꽃축제, 범고대회, 산사음악회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도 펼친다.

태고종은 이외에도 △종단 정책성과 종지종풍 확립을 위한 활동 △지역 불교 활성화 사업 △태고종립 선암사 성역화 및 율원 활성화 사업 등을 2009 핵심 종책사업으로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 “회정 정사 불기소처분 정당” 서울고등법원 재정신청 기각

“태고종 회정 정사 등의 ‘업무상 횡령’에 대한 검찰 불기소처분은 정당하다.”

서울고등법원은 1월 12일 진각종에서 채택도점된 최세정·손계락·손덕호씨가 회정 정사와 재무부장 지정 정사를 상대로 낸 ‘업무상 횡령과 관련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은 농림촌 명의로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해 위조했다고 주장하나 농림촌은 인감도장 교부에 앞서 흥천부 동산의 매입 및 매각을 종단에 위임한다는 이사회 결의를 했던 점 등을 볼 때 이 부분의 불기소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흥천 부동산 매각대금 횡령에 대해서도 “이를

횡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흥천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각해 진각종에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매각대금 50억원은 당초의 낙찰 금액 43억 5580만원 보다 6억원 이상 높은 금액인 점 등을 볼 때 피의자들이 이를 50억원에 매각한 것을 배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총무부장 효심 정사는 “재판부의 이번 결정을 전 종도들과 함께 환영한다”며 “앞으로 불법적으로 종단에 해중행위를 계속 입삼는다면 죄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생활불교 실천 도량으로 운영”

### 영제 스님 관문사 주지 취임

종무원장의 주지격이 관례이던 천태종 서울 관문사에 새 주지 스님이 취임해 눈길을 끈다.

천태종(종무원장 정산)은 2월 1일 관문사에서 제5대 주지 영제 스님의 취임식을 봉행했다.

천태종 스님들과 박성중 서초구청장, 이동우 서울시공무원복지연합회장 등 2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행사는 △국운웅장 발원 △신도회장 개회사 △신인 주지 약력 보고 △취임사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영제 스님은 취임사에서 “관문사는 법회뿐만 아니라 일반 문화행사로 개최할 수 있는 종합불교회관”이라며 “생활·대중불교를 실천하는 도량으로 관문사를 운

영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모든 신도들이 불교 생활화 실천을 통해 대중화를 일군다는 각오로 열심히 수행정진하자”고 강조했다.

천태종 주요 수도권 전법도량 관문사는 “서울에 큰 천태사원을 세우라”는 상월 대조사 유촉에 따라 1998년 서울 서초동 우면산에 건립됐다. 기도와 일교법회를 마친 불자만을 신도로 인정하는 등 높은 수행력과 신심을 갖춘 불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은 교계의 귀감이 되고 있다. 또한 2008년에는 상월 대조사가 1971년 재가불자언거 시 당부한 뒤 유명무실해진 ‘관세음보살 100만 독송’을 여법하게 회향해 수행 분위기를 쇠



2월 1일 관문사 옥불보전에서 봉행된 제5대 주지취임법회에서 이금복 신도회장(사진 오른쪽)이 영제 스님에게 축하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신했고, 신도회 산하의 다양한 신행단체를 구성하는 등 도심형 포교활동에 매진해왔다. 2007년부터는 중국 북경 영광사와 자매결연을 맺는 등 해외 포교에도 앞장 서 왔다.

그동안 관문사 주지는 총무원장이 겸임했던 것이 관례였기에 이번 영제 스님의 주지취임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총무부장 무원 스님은 “이번 인사는 총무원장스님이 종단 전체를 아우르는 총무행

정에 힘쓰고, 종단 부장스님들이 서울지역 사찰의 주지소임을 맡아 원활한 종무행정을 펼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교계에서는 이번 영제 스님 주지취임은 천태종이 수도권 도심포교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월 4일 발표된 천태종 인사에서 영제 스님(교정부장) 외에도 경천 스님(사회부장)과 무원 스님(총무부장)을 각각 서울 성통사와 명락사 주지로 발령하는 등 총무원 부장스님 3인을 서울지역 사찰주지로 임명했기 때문이다.

관문사의 새 주지스님 취임이 수도권 일대 관음정진 수행과 포교의 새 바람으로 이어질지 주목되는 이유다.

김진성 기자 yjean@buddhapia.com

### “관음주송 통해 지혜로운 범우로 거듭나자” 천태종 전국청년회, 학생회·어린이 지도교사 신년하례법회

천태종 청년 및 지도교사가 한자리에 모여 새해 새로운 결의를 다졌다.

천태종(종무원장 정산)은 2월 1일 단양 구인사에서 ‘전국청년회, 학생회·어린이 지도교사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 날 법회는 총무원장 정산 스님, 교무부장 유정 스님을 비롯한 6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했다.

법회에 앞서 종정 도용 스님은 삼보당에서 청년회와 어린이 지도교사와 대화를 갖고 “아까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기도를 열심히 해 불교의 깊은 진리를 찾으라”고 당부했다.

정산 스님은 법회에서 “여러분이 천태종 입문 당시의 첫 마음을 지켜 나간다면 그 마음은 이미 부처·보살의 마음”이라며 “초심으로 돌아 각 지구별로 연 2회 연합법회와 체육대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계획



2월 1일 단양 구인사에서 봉행된 ‘전국청년회, 학생회·어린이 지도교사 신년하례법회’.

을 밝혔다. 이 날 법회에 참석한 전국청년회원과 지도교사들은 도용 종정스님과 총무원장 정산 스님 등 천태종 대덕스님에게 신년하례인사 후 적멸공을 참배했다.

김진성 기자

### 태고종 중앙강원 ‘삼보승가대학’으로 변경 대교·사교·초심사집 과정 모집 16일까지

태고종 승려교육의 핵심적 역할을 해오던 중앙승가전문강원이 삼보승가대학(학장 보경)으로 명칭변경하고 학인모집 특전을 확대했다. 총무원 관계자는 “이번 명칭변경 및 특전확대는 타강원과의 차별성을 두고 교육의 문을 보다 확대 개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보승가대학은 3월 16일 입학 및 개강하는 대교·사교·초심사집과정 학인을 모집한다.

<화엄경>을 1년(2학기)동안 교학하는 대교과정은 주2회 수업하며, 응시자격은 △중앙강원·선암사강원·보덕사강원 사교과정 졸업자 △종단 종덕법계 이상 수지자 △타종단 승려로서 승납 20년 이상 △기타 불교학과 석사과정 이상 수료자다. 대교과정 졸업자 중 기법계 수지자가 상위 법계에 응시할 경우 논문을 면제받을 수 있다.

사교과정은 <능엄경> <금강경> <가신론> <원각경>을 2년(4학기) 동안 교학한다. 주2회 수업하며, 응시자격은 △중앙강원·선암사강

원·보덕사강원 사집과정 수료자 △동방불교대학 졸업자 또는 종단 구축계 수지자 △타종단 승려로서 승납 15년 이상자 △기타 4년제 정규대학 불교관련학과 졸업자다. 사교과정을 마친 승려들에게는 종덕법계가 수여된다.

초심 사집과정은 2년(4학기) 과정으로 <지문> <서장> <도사>를 교학한다. 주2회 수업하며, 응시자격은 △기분교육 이수 대상 사미(니) △승납 10년 미만 종도로서 희망자 △타종단 승려로서 승납 10년 미만자다. 초심사집과정을 수료하면 선택법계가 수여된다.

각 과정의 입학을 원하는 대상자는 태고종 홈페이지(www.taego.kr)에서 입학원서를 내려받아 2월 16일까지 총무원에 우편·방문접수하면 된다. 수강료는 1학기당 80만원이며, 초심사집 과정자 중 전승관 입방자(10명 이내)는 수강료 전액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다. (02)739-3450(내선 113번)

김진성 기자

##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생모집 안내

###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대학원

◆대학장 : 호암 ◆대학원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 강원 교육 -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학장 : 성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각 6개월 과정)
- ◇원서교부 : 2009년 1월 10일 부터 ~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개 강 : 2009년 3월 2일 월요일
- ◇교수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역 행정지원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원비

### - 범패·작법무 -

### 불교예술포럼

◆교수 : 해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포럼에서는 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보존회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불자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교육
- ◇원서교부 : 2009년 1월 10일 ~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7시
- ◇개 강 : 2009년 3월 5일 목요일